

## 토 론

**사회:**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자 여러분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경험하신 것 중에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요약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영근선생님께서 최근에 서독의 Bochum대학에 다녀오셨는데 그 곳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영근:** 제가 1976년부터 1977년 사이에 1년간, 그리고 지난 학기에 한 6개월간 가 있었는데 연구차 갔었기 때문에 실제로 가르쳐본 경험은 전혀 없고, 독일에서 가장 큰 한국학센터인 Bochum대학에서 교수, 조교, 학생들과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쪽의 Konstanz대학에 몇 개월 있다가, 오는 길에 Tübingen대학에 갔었는데 이 곳에 최근에 한국학과가 생겨 아이캠만이라는 분이 정교수로서 한국학을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서독에서 한국어교육은, 그 수강생이 대부분 한국간호원과 결혼한 대학생들이거나 혹은 한국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 미리 예비적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Bochum과 Tübingen대학 외에 München, Göttingen, 자유베를린, Köln, Frankfurt, Bonn 대학에서 한국학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학생수는 적다고 합니다. 그 중에 Bonn대학이 학생이 상당히 많아서 40~50명 되는데 구기성교수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난 4월 중순에 영국중부에 있는 더럼(Durham)이라는 도시에서 열린 유럽한국학회에 참석한 일이 있는데, 서구라파사람뿐 아니라 동구라파에

서도 소련학자들 포함해서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동구라파사람들과 서구라파사람들의 한국어 사용관이 완전히 달라서, 대부분 북한에 유학을 다녀온 동구라파사람들은 처음부터 한국 사람을 대하면 한국말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발표를 할 때도 한국말로 발표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서구라파 출신들은 한국말을 거의 쓰질 않고 발표도 물론 영어로 하여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사회:** 다음에는 오늘 이 토론회를 위해서 일부러 휴가를 내서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김경훈선생님이 그 쪽 사정을 말씀해주시겠습니다.

**김경훈:** 언어교육 6권 1호에 실린 고영근선생님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에 보면, 지금은 말레이시아과학대학이라고 하는 옛 페낭대학에서 심재기선생님이 1971년부터 한국어강좌를 하셨는데 심재기선생님대에서 끊어지고, 1980년이후에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 정부 수반들이 교환방문하여 문화협정을 체결하면서 1983년 1월부터 국립말레이시아대학(UKM)에서 제 2외국어로 한국어가 채택되었고 83년 8월에는 말레이시아공대에, 83년 10월에는 말레이시아공업전문대학에, 84년 4월부터는 말레이대학에 한국어강좌가 설치되어 4개대학에서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붐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어교육의 목표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대학재학생을 위한 교양과목으로서의 한국어강좌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 유학을 학생

들을 위해 집중훈련코스로 설치된 과정으로 양분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수는 UKM에서 한국어 I, II, III 포함해서 약 70~80명이 되고 UM에서는 10여명이 되며, ITM에서는 20명이 집중코스를 듣고 있고 UTM에서는 10명이 듣고 있습니다.

**사회:**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경훈:** 지금 ITM에서는 한국어학당에서 나온 ‘한국어’를 쓰고 있고 UKM과 UM에서는 박용득선생님이 지은 ‘한국어’를 쓰고 있고, UTM에서는 서울대어학연구소 한국어과정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서 교재도 어학연구소 간행 ‘한국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들이 많이 파견되어 있는데, 1주일에 4시간이나 2시간 가르치는, 제 2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의 적절한 교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시애틀의 워싱턴대학에서 2년간 교환교수로 주로 한국문학을 강의하시다가 지난 여름에 돌아오신 김종운선생님께서 그 쪽 사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운:**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대학에는 아세아어문학과가 있는데, 그 과 안에 일본어문교육, 중국어문교육과 더불어 한국어문교육이 있는데, 한국어문 교수로는 지금 한 분이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Fred Lukoff 교수가 한국어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교재는 Lukoff교수가 다년간 애를 써서 편찬한 것으로 초급, 중급의 급별로 되어 있고, 또 특이한 것으로 역시 Lukoff교수가 만든 것으로, 국한문혼용문장 즉 신문 따위를 읽기 위한 교재가 개발이 되

어 있습니다. 과목으로서는 초, 중, 고급 한국어, 국한문혼용과목, 그리고 사회과학도를 위한 한국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학생수는 최근에 와서 급격히 늘어나서 인터뷰에 의해 일부학생들을 제외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는데 학생수가 그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순수 미국학생도 점점 많이 오지만 부모를 따라 이민은 학생들이 급증한 때문입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유타주 Provo의 브리검 영대학에 특강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간 일이 있는데, 그 곳에 아세아 및 근동어문과가 있고 그 안에 한국어가 전공으로서 존재하여 현재 full-time으로 교수가 두 분이 있고 시간강사로 두세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애틀의 워싱턴대학과 달리 지방자를 다 받아들여서 그 숫자가 백수십 명에 이릅니다. 숫자가 놀랄 뿐 아니라 교육성과도 한국어로 자기 의사를 어느 정도 표현하는 수준까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원래 Provo라는 도시에 모르몬교에서 해외에 전도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언어교육기관이 있어서 여기서 합숙훈련까지 하며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배워 한국에 1년 반이나 2년 전도를 하고 돌아온 학생들이 이 대학에 와서 배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밖에 Portland에 있는 대학에서도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간노(菅野)선생님이 동경외국어대학의 사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菅野:**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의 역사를 훑어보면, 에도(江戸)시대 때 조선통사는 대마도가 관할하여 거기에 학교가 있었는데 명치초기에 부산 초량의 왜관에 옮겼다가 그 뒤에 동경에 생긴 동경외국어학교로 옮겨가서 1911년 조선학과

로 개칭하게 되고 그 후 학생수가 점점 줄어 1927년 폐과를 합니다. 우연한 일치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해 천리 외국어전문학교에 조선어학과가 생겨서 제 2차대전을 통해서 한국어학과로 이곳만 쪽 존재하다가 1963년인가 64년인가에 오사카외국어대학에 조선어학과가 생기고 1977년 즉 동경외국어대학에, 조선어학과 폐과 50년만에 조선어학과가 부활이 됩니다. 그 한 해 뒤에 도야마대학의 인문학부에 한국어학, 문학전공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립대학에 하나, 국립대학에 세 군데에 과, 혹은 과 비슷한 조직이 있는 셈입니다. 그럼 간단히 저희 대학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전임교수가 언어 2, 문학 2, 역사 2 해서 여섯 명이고 시간강사가 언어 3, 역사 2명입니다. 학생수는 1학년 15명, 2학년 15명, 3,4학년 30명 해서 전부 60명이고 대학원에 석사과정에 1명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90분짜리 6과목으로 모두 어학만 배우고 2학년 때도 90분짜리 6개를 하고 3,4학년 때까지 36단위를 합니다.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은 1학년 여름방학 되기 전까지 기초적인 한국어문법을 마치는 것인데 제가 만든 '한국어입문', 서울대 어학연구소에서 만든 '한국어', 그리고 김동준이라는 분이 손수 만드신 회화교재를 사용하고 여름방학이 끝나면, 제가 주로 한국한자음과 일본한자음의 대조관계를 기초로 해서 만든 교재를 사용하는 과목이 있고 한국의 교과서에서 뽑아 만든 초급 한국어독본을 가르치는 과목이 있습니다. 2학년이 되면, 회화, 한문, 어학개론, 논문형식의 한자가 많은 문장 읽는 시간 그 밖에 수필, 문학작품 읽는 시간이 있고 3,4학년에 가서는 한국어학, 문학, 한국의 사정에 대한 강좌가 있습니다. 이 밖

에 한국어교육법과목이 있는데 이것은 동경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있어서 한국어교육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과 학생을 위한 한국어강좌도 하나 두고 있는데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만들어야 할 교재로서는 발음에 관한 것이 급한데, 역시 일본사람에게는 한국어의 발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5,000단어를 목표로 기초어휘에 관한 교재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하나 필요한 것은, 한국한자음과 일본한자음과의 대응관계에 관한 교재입니다. 그 밖에 장기적인 목표로, 쉬운 한국말을 가지고 한국의 역사, 민속, 지리 기타 여러가지를 알 수 있는 교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역시 문학작품인데, 수필이나 문학작품을 순수히 어학적인 측면에 의한 난이도에 따라 배열하는 교재를 만들어야겠으나 사실 일본사람에게 있어서의 한국어의 난이도란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조리 있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최근에 British Columbia대학에서 한국문학을 가르치다 오신 심명호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심명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캐나다에 나가서 한 1년동안 한국학을 담당하고 왔습니다. 우선 UBC라고 하는 대학은 시애틀에서 북쪽으로 170마일정도 떨어진 Canada의 서부관문인 밴쿠우버에 있는데, 밴쿠우버에 한국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지금 약 7,000명정도 있습니다. UBC의 아세아학과는 역사가 수십년이 되는데 일본학, 중국학, 인도학은 오래 전부터 있었으나 한국학은 3년전어야 비로소 생겨서 지금은 한국어강좌가 2, 문화사,

한국의 공산주의 등등 해서 7강좌가 있고 학생수는 수십명이 되는데 이 숫자는 굉장히 놀라운 숫자라고 합니다. 제가 일년 동안 거기 있는 동안에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지고 있었고, 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더 붙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업은 초급한국어가 주당 4시간, 중급한국어가 주당 4시간, 문화사가 3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번은 한글학교에서 강연을 해달라 해서 가보고 또 그 밖의 몇 모임에 가서 느낀 것인데 부모들이 2세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야 할지 말아야 할 지에 대해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현지에서는 배워야 되느냐 안 배워야 되느냐에서부터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로는, 재정문제가 늘 심각한데, 부모들이 여름방학에 자녀들을 한국에 내보내는 데는 3천불 내지 5천불을 아깝지 않게 그냥 쓰면서 한글학교에는 잘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를 하는데 몇 시간을 해야 되느냐, 이를테면 토요일만 해서 3시간씩 하면 10년을 해야 되는 것이냐, 또는 일주일에 3번정도 시간을 내서 하면 5년으로 단축이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이 좀 확실해져야겠습니다.

사회: 그러면 다음에는 이병근 선생님이 빠리대학에서 한 2년 한국어를 가르치셨는데 그 쪽 사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근: 불란서에서의 한국어강좌는 빠리 국립동양어학교에서 1956년 처음 개설이 되었는데 3년 뒤 빠리대학 문학부(소르본느)에도 한국학강좌가 개설되어 이 두 군데서 계속되다가 소르본느의 한국학강좌는 빠리 제 7대학 동양학부 한국학과로 이어졌고, 동양어학교의 한국

어강좌는 빠리 제 3대학 부설연구원이라 할 수 있는 국립동양언어문화연구원의 일본, 한국학과의 강좌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1983년에 리용대학에 한국어강좌가 개설이 되어 3, 4년 뒤에 한국학과로 독립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빠리 한국문화원에 한국어강좌가 있고, 한인회에서 하는 수요학교가 있으며 지방에서 약간명을 메리고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대학에서 가르치는 경우 외에는 많은 교포어린이들이 참석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빠리 3대학 동양어학교의 한국어강좌는 정규대학코스라 아니라 대학의 교양강좌에 해당할 뿐이므로, 석·박사과정은 없는데 빠리 7대학 동양학부 한국학과는 대학의 정규학과로 되어 있어서 성격을 좀 달리합니다. 한국학과의 전임교수는 역사학을 전공하는 한 분, 어학을 전공하는 두 분 해서 모두 세 분이고, 그 밖에 한국 정부에서 파견되는 교수 1명이 있으며 시간강사는 5~6명이 있습니다. 원래 이 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동양어학교 같은 데서 한국어를 배우고 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1학년과 2학년에 한국어강좌를 두고 있습니다. 이 한국어강좌는 2년간에 걸쳐 90분짜리를 주당 5회 실시하는데 1학년에서는 한글자모부터 시작해서 발음이 라든가 하는 예비적인 단계가 끝나면 기본문장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책이다' 같은 문장을 가지고 응용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즉, '이것이 책이다', '이것이 책이냐?' 같이 간단한 것부터 해서 거기다 과거를 붙인다든가 부정문을 만든다든가 해서 기본문장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하게 되면 1년이 다 가게 되고 2학년에 올라 와서 당분간은 1학년때 배

운 것을 복습을 하면서 단어의 구성문제라든가, 피동, 사동 같은 것을 해서 2학년 끝날 때는 간단한 텍스트를 문법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문법중심으로 가르치지 회화중심으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회화를 조금 강의시간에 들었다고 해서 나가서 응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법 중심으로 2년동안 강의를 듣고 나면 대개는 막연하게나마 이런 문장은 이런 뜻이겠다 하는 정도까지는 되고, 이렇게 해서 3학년에 올라가서 텍스트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복잡한 어미도 배우게 되어 3학년을 마치고 학부과정을 졸업할 때에는 대충 사전을 들고 읽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됩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문법중심으로 강의하는 것이 적어도 불란서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불란서에서는 국민학교 2학년부터 문법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학년을 올라갈수록 조금씩 높은 수준의 문법교육을 받으므로 일반인들이 상당한 언어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런 지식을 응용해서 문법중심의 강의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 불란서의 독특한 교수방법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연세대 한국어학당에서 최근까지 교무주임을 역임하신 백봉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백봉자:** 저희는 한국내에서 한국어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신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한국어학당은 1958년에 한 선교사의 제의에 따라 설립되었는데 한국을 알려고 하는 외국

인과 한국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유학생 그 밖에 선교사, 외교관 등의 사람들에게 한국의 말과 글을 가르치고 아울러 그 배경이 되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어학당의 편성을 보면 1급부터 6급까지가 있어 1급은 한국말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고 6급을 마치면 졸업을 합니다. 한 학기가 10주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9시부터 1시까지 5시간으로 되어 있어, 첫 시간은 어학실습에서 교재를 중심으로 lab tape을 듣게 되고, 2,3교시는 집중적인 수업방법을 쓰는 intensive course시간이고 4교시는 읽기, 독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교시는 1,2,3교시에 배운 단어나 유형을 활용하고 응용하는 시간입니다. 한국어학당의 교수방법으로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실에서 외국어를 쓰지 않고 한국어로만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17개국에서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으므로 교실에서 어떤 한 나라 말을 써서 강의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한국어로 교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재는, 1970년대에 나온 박창해, 박기덕 선생님의 Korean I, II와 Intensive Course II를 쓰고 있고, 부교재로는 79년도에 나온 것으로 한국어학당의 전임교수들이 집필한 초, 중, 고급용 교재를 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전임교수들이, 아까 간노 선생님께서 수필 등을 난이도에 따라 책을 편찬한 교재가 아쉽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교과서를 집필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보조자료를 많이 쓰고 있는데, 프린트물이라든가, 그림, tape, flash card, 신문, 단편작품 같은 것을 쓰고 전화, 시계 기타 여러가지

도구들을 교실에서 씁니다. 성적 평가는 1학기에 두 번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을 60%, 평소성적을 40%로 하여 평균 60점이상이면 진급을 합니다. 평소성적에는 말할 때의 억양, 발음 등을 보고, 유창성, 교실에서의 적극성, 그리고 맞춤법이 정확한지 등을 봅니다. 현재 전임 교수가 열 분, 시간강사가 서른한 분인데 1년에 보통 1~2번씩 강사채용을 합니다. 강사를 채용하면 상당한 기간 훈련을 철저히 시킵니다.

**사회:**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재외국민 교육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시는 이 종석 선생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종석:** 재외국민교육원은 1970년도에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연구소로 발족을 했다가 77년도에 현재와 같은 재외국민교육원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기관이 있는가 하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재외국민교육원은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들에게 한국인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어서, 현재 대학에 비교육과정, 단기교육과정, 고등학교교육과정 등의 몇 가지 과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학에비교육과정에서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자질을 가르치고 그 외에 민족교육반은 우리말을 가르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학급편성은, 생활지도반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생활관 학급, 한선생님이 4~5명씩 메리고 앉아서 우리말을 가르치는 개별지도반, 10명정도로 능력별 반편성을 해서 가르치는 학습반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과목은 국어, 국사, 국민윤리가 필수과목이고, 영어와 수학이 선택과목인데 국어는 주당 20시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외국민 교육원에는 미주지역, 중국, 서구라파

에서도 몇 명씩 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일본에서 온 재일교포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81년부터 새로 시작한 단기교육과정은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국을 배우겠다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하여 전, 후기로 나누어 전기는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후기는 9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13주간 우리말과 한국의 실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단기교육이라고 해서 춘하계에 세계각지에 있는 교포학생들을 초청해서 2주간 교육을 시키는 데 이것이 굉장히 인기가 높아 미주지역 같은 데서는 서로 오려고 해서 경쟁이 심한데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어 다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금년 경우에 1,111명을 교육시켰는데, 이것이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외국에서 중학교를 마친 학생들을 사대부속고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게 하고 있고, 한 해 50명정도 국비장학생을 뽑아 운영하는 국비생과정이 있습니다. 교재는 국어, 회화, 작문, 한자교재가 있는데 저희 교육원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외국민교육원에서는 매년 미주지역의 2중언어교사들을 초청해 연수를 하고, 토요일교 선생님들을 모셔다 연수를 합니다. 세계 각국으로 파견되어 나가는 한국교육원의 원장들이나 한국학교의 교사들을 교육시켜 내보내고 금년같은 경우는 일본민단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다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교육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재일동포학생이라고 했는데, 애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 아이들에게 고충이 많다는 걸 압니다. 즉, 저는 일본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에 와보니 한국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우리 말을 잘 못하고 일본말을 하니, 한국 사람이 우리말도 못하느냐 하는 말을 많이 듣고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는데,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의 한국어과정에 대해 현재 직접 가르치고 계시는 윤희원 선생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윤희원:**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의 한국어과정은 지난 8월까지는 초, 중, 고급반 합해서 각 급에 한 반씩 3학급이 있었고, 별도로 작년부터 말레이시아의 정부장학생을 위한 한 반이 더 있었는데 지난 9월부터 학생수가 갑자기 많아져서 현재는 중급반이 2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업시간은 하루 3시간인데 초급반은 30분동안의 lab이 더 있습니다. 전과정이 1주일 5일씩 해서 3개월로 되어 있으므로 초, 중, 고급의 전과정을 9개월만에 마치는 셈이 되겠습니다. 시험은 한달에 1번 정도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을 보는데 평가방법은 주로 형성평가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학연구소에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서울대학교 혹은 국내 다른 대학에 유학을 목적으로 온 학생들입니다. 교재는 어학연구소에서 만든 '한국어 I, II'를 주로 쓰고 있고 필요에 따라 여러가지 보충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체로 공부를 목적으로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지만 각자의 전공이 미술, 공학, 농학, 국어학, 한국사학, 불교, 철학에 이르기까지 가지가지이기 때문에, 9개월동안 단일 교재로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따라갈 수 있는 수준으로 가르치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학생들의 개인의 목적에 부합하면

서 한국어교육이라는 전체로 수렴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절실하지만 현재로서는 교재가 한 가지 뿐입니다. 교수법은 판서를 하고 문법사항을 설명하고 oral drill을 시키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몇 가지를 더 시도해봤지만, 모두 성인이고 또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동기가 확실히 있는 한, 새로운 교수법의 도입보다는 그 사람들이 이미 한 가지 이상의 외국어를 배운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즈음 세계적으로 한국어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국적, 인종도 다르고 배우는 환경, 여건도 다르며 연령층과 학습목적도 각기 있어서 문제점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TESL이나 TEFL이라는 department가 여러 대학에 생겨서 영어를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해서 실제로 많은 효과를 얻었는데,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 department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범대학의 한 전공으로서라도 두어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는 일이 급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여건에서도 쓸 수 있는 훌륭한 교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교수방법도 앞으로 전문가들이 자꾸 연구개발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남아주신 여러분들은 다 아마 한국어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토론자로 계신 분이나 floor에 계신 분들이 다 합심해서 이 문제를 공동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한국어교육이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김세중)